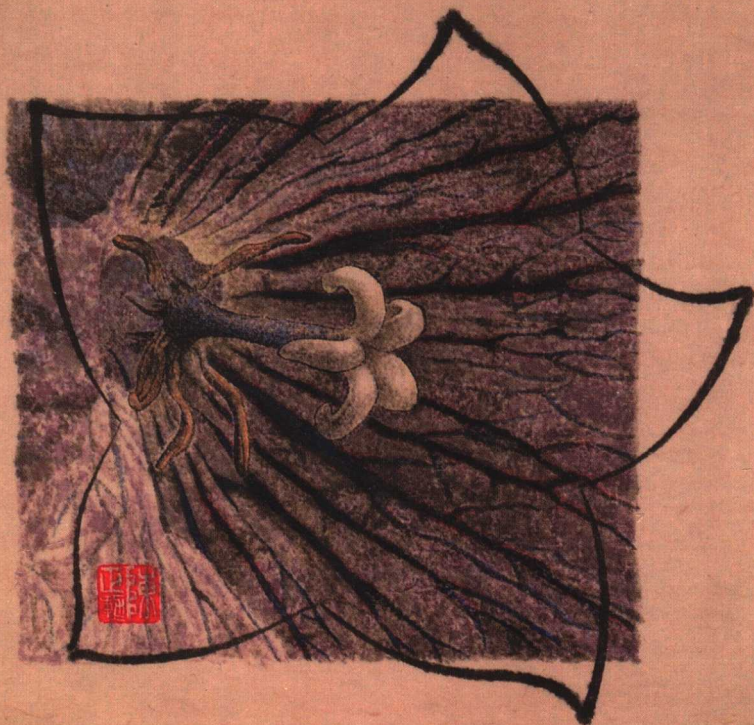


문창남문집

1 시집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문창남문집 1
시 집

《문창남문집》 간행위원회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文昌男文集. 1/文昌男著; 权贵女, 文春喜编.
北京: 民族出版社, 2006. 11
ISBN 7-105-08041-8

I. 文... II. ①文...②权...③文... III. ①文学-作品综合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②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6)第134609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6年11月第1版 2006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 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 13

字数: 358千字 定价: 26.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떠나지 않은 창남군

—간행사를 대신하여

《문창남문집》 간행위원장 남영전

우리 문단의 인기인물이었고 또한 늘 화제에 오르곤 했던 창남군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떠나간 창남군에게 꼭 해주어야 할 일 하나를 성사시키지 못해 《문창남》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료녕의 정철선생님이 창남군의 영결식에 가셨을 때, 창남군의 부인이 정철선생님께 창남군이 모아둔 수필복사본 한 묶음을 보이더라기에 내가 그것을 받아안았다. 이 수필묶음은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진황도에서 쓴 글인데 그가 출판을 넘두에 두고 책이름과 목록까지 다 만들어놓았었다. 만약 이 수필묶음이 출판된다면 창남군의 세번째 수필집이 된다. 하지만 일은 마음먹은대로 잘 되지를 않았다. 그러던중 창남군의 제자인 안영수씨가 5권으로 된 《문창남문집》을 펴내는 큰일을 맡기하여 해냈기에 나는 감개무량하지 않을수 없다.

창남군은 실로 뼈아픈 인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24세의 꿈많은 나이에 9년이란 긴긴 옥고, 2년 넘는 농촌개조생활, 말하기 쉽

고 글로 옮기기도 어렵잖겠지만 정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캄캄
침야의 암흑과 흑한이 가져다주는 뼈아픈 고통을 상상하지 못할것
이다.

그래서 새 날과 새 봄을 맞은 창남군은 서리서리 영킨 월한과
해방의 환희를 뜨거운 눈물로 엮었고 불타는 글로 웨쳤다. 갈증에
못견디어 비물 한컵 받아마시려다가 도리깨로 콩단 두드리듯 매
맞던 옥중생활, 10년만에 철창문을 나와 초라한 차림으로 그가 살
던 옛집을 찾던 쓸쓸한 광경, 아들이 《특무》라고 부친님이 또다시
매맞아 세상뫼다는 청천벽력, 《립공속죄》란 말에 문예경연의 극본
을 쓰느라 런 이틀 밤을 꼬박 새웠고 사흘째는 코피를 쏟으며 책
상머리에 까무러치던 모습, 5층 아파트로 새집들이 한 첫날밤에
잠 못들고 깊은 추억의 소용돌이속에 빠졌던 영상...그의 글을 읽노
라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언저리가 찡해남을 어찌지 못한다.

창남군의 이야기는 늘 끝없는 강물처럼 흘렀다. 같이 기차나
빠스로 여행을 할 때면 그의 이야기는 긴긴 레루와 도로보다 길었
고 호텔방의 모임에서는 그가 이야기판을 독차지하다싶이 하였다.
그의 경력과 수난사는 문우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언제나 민족심과 정열로 끓어넘치는 글발, 구수하면서도 청산
류수인 언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고 양복호주머니에 늘 넣고다니
는 자그마한 거울과 빗을 꺼내어 머리칼을 단장하는 멋쟁이, 그와
같이 있는 좌석에서는 언제나 떠들썩한 폭소가 터져서 좋았다.

이렇게 인상적이던 창남군과의 마지막 만남은 1992년 봄 《흑
룡강신문》 문예부 문학모임에서였다. 창남군이 창녕기업으로 자리
를 옮긴지 반년 남짓한 때였다. 회의가 시작될무렵 그가 회의장에
나타났다. 역시 멋진 양복차림에 환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다소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신문사초대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창녕기업을 소개하고 자신의 타산을 토로했다. 밤 10시가 되자 그는 일어서면서 돌아가서 불일이 있기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더러 할빈에 온김에 자기가 안내할테니까 창녕기업을 한번 돌아보라고 신신당부하였다. 이튿날 오전, 나는 한춘군과 함께 시중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있는 창녕기업을 찾았었다. 그러나 창남군은 약속대로 나타나지를 않았다. 접수실 당직의 말에 의하면 그는 급한 용무로 미처 우리에게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이른새벽에 진황도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그후 창녕기업 본부가 진황도로 자리를 옮겼고 창남군 역시 가족과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했었다.

진황도 바다가에서 창남군은 수시로 나에게 편지를 띄워왔다. 10권이나 되는 장편대하소설을 쓴다고 해서 놀랐고 정치경제학을 새로 공부한다고 해서 돋보였으며 외국나들이의 감회를 적어왔기에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

그런데 1996년 봄에 창남군이 배속에 흑이 생긴걸 몰래 병원에 가서 수술해던지고 봉대로 허리를 졸라맨채 그냥 《흰돛》을 날려가고있다는 소식을 편지로 나에게 알리면서 남긴 한탄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동안 나도 외로운 타향에서 고향을 겪으며 〈흰돛〉을 5부까지 썼다가 다 뒤엎어버리고 상, 중, 하 3부작으로 새로 출항하였소. 새로 쓴 상부 56만자는 올해 여름쯤 조한문으로 동시 출판될 듯. 중부, 지금까지 20여만자 나갔소.》, 《나이가 드니 이제 몸이 여의치 않구만.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주요목적은 반드시 완성하고 떠나야지...》, 《올해 가을 한달쯤 휴양하며 길림, 장춘의 벚들을 찾아가 만나려네. 그때 만나세!...》

그해 여름, 온다는 사람은 오지 않고 부고가 훌쩍 날아왔으니 이 어찌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있으랴!

53세의 짧은 인생길에 고향 많았던 창남군은 30년동안 문필

활동을 해온 우리 문단의 영향력있는 시인, 작가이다. 1967년 24세때 그는 한편의 장편서정시때문에 《현행반혁명》으로 몰렸고 옥중에서도 시 쓰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문학장르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출판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문창남》 하면 그는 우선 시인으로 유명했지만 생전에 국내에서 시집 한편 출판하지 못했고 진황도에서 쓴 수필묵음은 여태껏 잠을 자고있었다. 처음에 구상하던 장편소설의 10부작 계획도 1, 2부는 출판되었지만 생애 마지막 1, 2년사이 그가 병마와 싸우면서 혼신을 불태워 새로 날리던 《흰돛》의 56만자에 달하는 미완성원고는 유작으로 남았다. 더우기 안타까운것은 새로 쓰던 최후의 유작원고를 문우들과 은사들에게 보내어 수개의견을 요청하였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정판룡교수님도 이 원고를 보고나서 《...창남이는 이제 대작가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원고는 지금까지 실종되어 주인의 손에 들어오지 않고있다.

창남군은 참으로 불행했지만 그는 또한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를 항상 존경하여온 제자 안영수씨가 그가 못다한 일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수년동안 안영수씨는 《문창남문학전집》을 간행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한춘, 정철, 서영빈, 김호웅, 오상순, 김재국, 김홍란 등 시인, 작가, 평론가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간행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남군도 가지고있지 않던 그의 발표작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동분서주하였고 작품의 정리에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었고 뜻을 같이하는 겨레 젊은이들의 힘을 모아 창남군의 시집, 수필집, 중단편소설집, 《흰돛》 제1부, 《흰돛》 제2부, 이상 5권으로 150만자 분량에 달하는 《문창남문집》출판을 성공시켰다.

《문창남문집》의 간행은 우리 문단의 하나의 큰 희사이다. 우

리의 문학사는 《문창남문집》의 간행으로 아름다운 한페지를 장식할 내용이 있게 되었다. 창남군의 글을 즐겨 읽던 독자들은 흩어져 있던 그의 작품, 잠자고있던 그의 작품을 이제 5권의 책으로 향수할수 있게 되었고 창남군을 모르고있던분들은 이제 우리 문단에서 활약하던 훌륭한 작가 한분을 알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될것이다. 그리고 연구가들은 이제 창남군의 자료수집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자랑스러운 일을 해낸 후배 안영수씨와 의기투합하여 적극 동참해준 젊은친구들이 고맙다. 동시에 여러 모로 수고해주신 간행위원 여러분과 정성을 다해 멋진 책을 펴내준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한 작가의 진정한 생명은 그의 작품이 독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것이라는것을 저 먼 진황도 바다에서 쉬고있는 창남군에게 전하고싶다.

2006년 10월 25일

장춘에서

문집을 엮으며

1

이제는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

10년전에 잃어버린 우리의 작가 문창남선생의 모든것을 다시 이해할수 있어야 한다.

변두리문화권의 변두리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우리 겨레의 삶을 살던 그 사람, 오로지 겨레사회의 더욱 밝은 진로에 대한 탐구로 집요하게 혼신을 불태우다 말없이 목숨마져 바친 그 사람의 모든것에 대해 이 땅에 생명의 초불을 이어가고있는 우리는 이제라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력사는 결코 흘러가서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내면에 깊숙이 살아있기때문이며 지난 세월의 궤적으로부터 어느 누구나 자유롭지 못한 까닭이다.

과거 기억의 실타래 변두리로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幻影)속에 아직도 서성이며 떠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고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몸은 갔지만 글줄에 스민 정열적인 목소리는 아직도 못난 우리의 심혼을 울리며 오늘날 뺄뺄어진 삶의 자세들을 고발해주고있기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욱 많은 자유를 얻어야 한다. 과거라는 거울에서 더욱 자유스러울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인간다워지고 의젓해지기 위해선 못다이루고 떠나간 선인(先人)들의 사랑과 아픔, 성공과 실수마저 갈무리하여 우리의 피와 살로 보태고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남아야 한다. 건전하게 살아남아서 그동안 우리를 정녕 우리답게 만들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삶의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키워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다양한 문화의 각축장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자아올리게 해야할것이다.

비록 어리석고 불민한 제자이지만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친구 교체의 격동기에 문창남선생의 말년을 다년간 가까이에서 지켜본 마지막 견증자라는 리유가 이번 문집간행의 발기자로 나서게 등을 떠밀었다.

《도라지》잡지사의 편집시절엔 열혈시인과 수필가로 글 읽는 우리 겨레치고 모르는이가 없었던 문창남선생이지만 1991년 가을에 길림의 문학지를 떠나 사영기업인 창녕회사에 간 뒤 선생의 행적은 별로 알려져있지 않으며 수많은 억측과 류언비어만이 무성해왔다. 심지어 많은 동료문인들마저 선생의 당시 파격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상해하거나 아쉬워하여왔다. 아직도 그냥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불쌍한 문인》 정도로 세인들에게 기억되는것은 고인에 대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며 지금까지 후학의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서 짓누르고있는 아픔의 근원이다.

사실 선생은 개혁개방이 한창 심화되던 사회격변기에 앉아서 변화를 기다린것이 아니라 당당히 응변(应变)의 자세로 맞받아 나가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선뜻 대장부다운 용기로 시도하였었다. 동시에 가다가 실패할수도 있다는것을 충분히 알고계셨지만 자신의 소신에 최선을 다하는 탐구자의 모범을 보여준 각도에서 성

공적인 삶을 영위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것이다. 통증이 심한 간암말기환자였지만 그렇듯 평온하게 마치 어린애가 잠들듯이 림종을 맞이할수 있는것은 소신을 다해 온몸으로 치열하게 후회없는 한생을 살았었기때문이라.

주지하다싶이 1980년대의 문창남선생은 우리 겨레 사회 량심의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속시원히 우리 겨레들이 하고싶은 말을 대신해주며 애환을 같이한 령혼의 벗이었다면 1990년대의 문창남은 보다 선진적인 산업민족으로 탈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진로모색과 락후한 의식수준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창녕》이라는 초우량 민족기업의 산업문화현장에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앞장서서 고민하고 몸소 실천한 화랑 그자체였다. 원을 넘은 나이에든 간단없이 자신을 갈고 닦던 선생은 바야흐로 작가적기량이 무르익으며 완숙기로 접어드는 언덕에서 아깝게 쓰러진 노력가였다. 민족문화의 자양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만》의 산재지역에 있으면서도 항상 시대변화의 앞장에 서서 겨레사회의 자그마한 등불역할을 해준 선생의 공적은 마땅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새로운 문학적사회실천을 통해 남겨준 교훈도 성공담이상으로 심도있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겨레사회 문화인들이 공유할수 있는 귀중한 정신적자산내지 밑거름으로 정리, 축적되어야 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후 10년뒤에 만들어지는 이 문집은 단순히 고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것은 결코 아니다. 용기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실천이 고상한 제 자리의 웅변보다 10배는 나은 법이며 체질화된 의심과 변명은 나약한자들의 특허임을 몸소 보여준 선생이 도대체 이 겨레에게 무엇을 어떻게 찾아주려 했는지를 파악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집한 작품들을 본 모습 그대로 최대한 포함시킴으로써 전집에 가깝게 만들었다. 지난 력사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방편으로 여러 사람들의 단편적인 글들을 모아놓고 종합으로

보는것보다 대표적인 한사람의 모든것을 모아두고 깊이있게 관조하는것이 때로는 더욱 가치있고 접근이 용이하기때문이다.

2

이 문집은 도합 5권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권은 1977년부터 1991년사이에 창작된 시작품들로 이루어진 시집이다. 열혈시인으로 불리였던 문창남선생은 도합 170여수의 시를 남기었는데 주로 감옥에서 석방된후인 1977년부터 1991년 8월까지 길림지역에 계실 때에 창작한것들이다. 시 작품을 정리하던중 1991년 9월 창녕회사에 간후부터 시창작을 완전히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발견하였다. 단순한 장르적전환보다는 획기적 사상적변화를 류추할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1993년무렵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종합시집을 출판하려고 직접 원고지에 또박또박 정서해둔 시원고가 발견되었다. 확인한 결과 정서해둔 시원고들은 전부 기존에 발표된 작품들이었으며 선생이 자신의 시문학전체를 자기나름대로 정리하고 매듭짓고저 스스로 소재목으로 만들어 내용별로 체계화했던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제1권 시집은 선생이 정리해둔 시원고의 100여수를 기본텍스트로 하고 기타 원고들중 시기별로 작가의 사상 변화적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시와 가사를 10수좌우 엄선하여 추가하는 무례를 저질렀음을 밝히고싶다.

제2권은 1979년부터 1996년까지 문필생활을 영위하던 전 시기에 걸쳐 창작된 수필작품들을 실었다. 197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창작된 수필들은 이미 출판되었던 선생의 수필집 《동집계》와 《인심》을 기본텍스트로 하고 1992년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은 유가족이 보관하고있던 자료에서 추가했다. 마침 선생이 사망한 1996년의 봄에 세번째 수필집을 간행하고자 《야자수 그늘아래》라고 제목하여 원고지에 첩필로 써두었던 수필집 차례를 남영전선

생게서 발견하여 1992년이후에 발표한 수필작품들의 면모에 대해 쉽게 파악할수 있었다. 그외에 투락되었던 일부 옛이야기와 과거의 수필 몇편은 《장백산》잡지사와 《도라지》 잡지사에서 보관하고있던 다양한 년감자료들에서 발견하여 추가하였다.

하지만 워낙 분량이 많고 시기별 내용과 창작특징이 서로 다른 점에 착안하여 수필집은 제1부 《송화강편》과 제2부 《창녕편》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특히 설명하고싶은것은 제2부 《창녕편》이다. 1991년 9월 창녕회사로 간후부터 별세할 때까지 발표된 작품들인데 대부분 창녕회사에서 겪은 체험을 위주로 쓴 글이기에 문학적 색채보다 실화적색채가 뚜렷한 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민족기업가인 석산린씨와 그의 창녕회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와 선생이 그곳에 머물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있는 내용들이어서 작가의 관념변화와 선비적우환의식을 적라라 하게 파악할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보기에 따라 거친 문장들도 있지만 현장감을 살려 거의 첨삭을 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실었다.

제3권은 중편소설 3편과 단편소설 2편으로 이루어졌다. 《옥중비사》와 《꽃필무렵》은 발표 당시 우리 겨레사회에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적 있던 상처문학소설이며 그 실화적기술방법으로 하여 적지 않은 물의도 빚어냈던 화제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두 작품은 당시 발표한 《장백산》잡지의 원본을 텍스트로 하였다. 그 외 단편소설 2편과 중편소설 1편은 모두 선생의 유가족이 보관하고있던 어느 잡지에서 오려둔 내용을 텍스트로 삼았다. 비록 내용과 질로 볼 때 1980년대초엽 다양한 장르적시험을 시도한 흔적이 보여지는지라 어느 정도 미숙한 면이 있긴 하였지만 기발표작이고 역시 선생의 문학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기에 앞의 두 중편소설과 함께 한권으로 묶었다.

제4권과 제5권은 선생이 창녕회사에 간 뒤 10부작으로 계획하고 창작하기 시작했던 대하소설 《흰뚝》의 1, 2부의 내용으로서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룡녕민족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던 작품이다. 선생은 위낙 10부작으로 계획하고 상기 2부를 출간한후 제3부를 쓰던 도중인 1994년 여름에 자신의 전체적인 소설구도와 착안점에 대해 심각한 정신적갈등과 회의를 느끼면서 6개월간 창작을 중지하고 철학공부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후 1994년 가을무렵에 기존의 10부작 구상을 스스로 전부 뒤엎고 새로 3부작으로 재구성한 뒤 처음부터 다시 장편소설의 창작에 뛰어들었다.

선생은 1995년 겨울까지 새로 쓴 소설 제1부의 약 56만자 되는 분량의 원고를 프린트하여 연변대학의 친우인 김화병선생에게 보내 여러 은사님들과 평론가들의 조언과 사전평가를 대신 받도록 하였었다. 당시 생전이었던 정판룡교수가 원고를 읽어보고 《...창남이는 이제 대작가야!》하고 치하를 아끼지 않았던 일화가 전해진다. 허나 후날 1996년 7월에 선생이 사망한 뒤 새로 쓴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지금까지 몇년간 각종 방법으로 도처에 수소문하였으나 실종된 상태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음을 밝히고싶다. 그리하여 비록 1994년 선생이 스스로 부정하였던 10부작 구상의 일부분으로서 미완성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이 창녕에 머물며 민족기업인 석산린씨 일가의 역사를 소재로 하여 이 땅에 건너온 우리 겨레 선조들의 이민사와 혁명사, 개척사를 어떤 시각으로 정리하려고 시도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수 있는 대목이기에 원래의 1부와 2부를 그대로 실는것임을 리해해주시기 바란다.

제1권 시집과 제2집 수필집은 시대적차이를 감안하고 문학적인 리해를 돕기 위해 각각 전문가들의 해설론문을 실었다. 하지만 소설에 해설론문을 첨부하지 않은 리유는 상술한바와 같이 56만자짜리 최후의 미완성유작을 문집에 실지 못했기때문에 문창남선생의 소설문학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생애 말년에 심각한 반성과 전환을 거쳐 집필된 글이기에 작가의 천부적기량을 온축시켜놓은 자기나름대로 가장 완숙한 최고의 작품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믿는다. 실종된 유작이 발견될 후날을 기대하는바이다.

그외 문집의 제1권에 해당하는 시집 뒤편에 작가년보와 작품년보를 정리하여 실었다. 작가년보의 내용은 길림시 교외의 농촌에 살고계시는 선생의 로모와 동생을 만나서 정리한것이며 현재 북경에 살고계시는 사모님과 장녀 등 유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서둘러 정리한것이다. 작품년보에 기재된 글들은 전부 다 기 발표작 인것만은 확인되었으나 원문을 오려둔것들에 대해서는 발표된 곳과 시간을 전부 다 확인할수 없었으므로 빈 란으로 남겨둔데 대해 량해를 구하고싶다. 수필의 경우는 대부분 이미 출판된 두권의 수필집에 수록되었던것인지라 그나마 껴봤지만 시의 경우는 1980년대 신문에 발표된 작품이 대부분이라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단시일내에 도무지 확인하기 어려웠음을 밝히는바이다.

상술한바와 같이 이번 문집에 실리는 글들은 모두 선생이 생전에 지면에 발표한 작품들을 위주로 대표적인 글들로 이루어졌다. 텍스트로 사용된 작품의 원문들은 모두 정리되어 선생의 유가족이 영구보관하고있기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여왔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 기록되었거나 루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자료정리를 맡은 본인의 책임이라는것을 강조하고싶다.

3

문집의 간행과정에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죽어서도 자신의 생전 임무를 잊지 못하고 이 순간까지 노력하는 작자의 명령앞에 숙연해지는 마음으로 웃것을 여미게 된다. 여기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금년 4월의 어느날 수필원고를

정리하던중 갑자기 옛날의 기억속에 있던 한편의 수필이 빠진것을 발견하고 《장백산》잡지사에 전화로 부탁하여 찾아낸적 있었다. 그 이튿날저녁에 모처럼 선생의 사모님(문선생의 미망인)과 장녀(춘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오늘 아침 일본에 살고있는 시누이(문선생의 여동생)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꿈에 오빠를 보았다고 하더라. 10년 전 세상 뜬후 처음으로 꿈에 보았는데 간암으로 아플 때의 수척한 모습으로 나타나 바쁘게 돌아다니기에 오빠 뭐가 그리 바쁘냐고 물었더니 선생은 수필편집 하느라 바쁘다고 하며 왜 빨리 편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마침 내가 중요한 수필이 루락된것을 발견하고 찾던 날의 이야기였다. 피씩 웃음이 묻어나던 순간 나의 뇌리에는 죽어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한 인간의 집요한 신념의 파아란 불길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아서라, 대장부의 정신력과 집념이 이 정도는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망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와 수필의 해설론문을 맡아주시고 여러모로 유익한 조언과 격려를 간단없이 해주신 한춘(산천)선생과 서영빈선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싶다. 저명한 시인이자 평론가이신 한춘선생은 문선생 생전의 막역한 지기였다는 사실이 경우에 따라서 장점도 단점도 되지만 객관적공정성에 기반한 엄밀한 학덕자세에 대한 오랜 믿음이 15년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여 전화로 론문을 의뢰하게 만들었고 본인도 흔쾌히 수락하였으며 바쁜 시간을 내여 써주시였다. 수필의 창작과 리론연구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서영빈선생의 독보적위치는 자타가 공인하는바이지만 론문의뢰에 대해 재삼 사양하다가 끝내는 후학의 황소고집에 못이겨 수락해주었다. 지성을 다해 수고해주시는 모습에서 겨레사회 문화인들의 사려깊은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동시에 언제 어디서나 겨레사회의 부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위 젊은 친구들의 사심없는 경제적후원에 고마운 마음은 방안에 가득하다. 문학과는 다소 거리가 먼 친구들이지만 단지 문창남이라는 겨레문인의 인격과 용기있는 선비정신에 감복되어 문집간행에 보태라며 선뜻 후원금을 회사해준 조충복, 서명, 박양, 현용남 등 동지들의 이름은 어느 바다가 벼랑우에 소담스레 피어난 도라지꽃들의 분신이 아닐가 자문해본다. 요즘같이 비정한 세월에 먹고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가치있는 일을 하자고 선뜻 봉투를 내미는 미더운 벗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까지 훈훈하게 살맛이 나는지도 모른다.

아울러 회사생활의 바쁜 틈을 타서 문집원고의 정리를 도와주고 컴퓨터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준 권선화, 김애란, 리분순 등 후배들에게도 고마운 감정을 잊을수 없다.

그리고 문집의 앞표지에 들어갈 그림 한폭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십수일이나 수고해준 진정훈화백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싶다. 바다 건너 살면서도 오로지 문창남선생의 사진과 자료에 의거해 고인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내밀한 정신세계를 정밀한 《도라지꽃심》 그림으로 승화시켜 표현해낸 화백의 지순한 노력은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하는것이었음을 밝히고싶다.

마감으로 경영난으로 어려운 출판업계의 사정이 불보듯 뻔하지만 문집의 원만한 출판을 위해 갖은 로고를 아끼지 않은 민족출판사 조문편집실 편집선생님들께도 머리숙여 심심한 사의를 전하는바이다.

이 땅의 푸르른 정기와 하얀 량심을 모아 조출하게 만들어진 이 문집을 아직도 저 하늘에서 로심초사하고 계시는 작가 문창남 선생의 령전에 온전히 바친다.

떨어져 흩이 되어도 도라지꽃 향기는 대를 이어 영원하리라!

2006년 8월 30일

《문창남문집》 간행발기자 안영수 삼가 씀.